

펫코노미시대의 동물원 동물에 관한 질적 연구

김석은
건양사이버대학교
e-mail:sekim@kycu.ac.kr

A Qualitative Study on Zoo Animals in the Pet Economy Era

Seok-Eun Kim

*Dept. of Companion Animal Management Scienc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와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증가 등에 따른 반려가족의 증가로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펫코노미시대에 동물원 동물에 관하여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동물원 동물은 종 보전 기능, 교육·연구 기능, 오락적 기능 등을 갖고 있어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로 판단된다. 현대 동물원은 ‘노아의 방주’로서의 역할인 ‘종 보존’의 기능을 제1 기능으로 응답하였던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위하여 향후 동물원 동물에 대한 설문 조사를 더하여 지면에 보고할 것을 약속드린다.

분명한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다[4]. 동물원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고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국민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다[5].

1. 서론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증가 등에 따른 반려가족의 증가로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매년 확장 되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펫코노미 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에서도 2027년에는 반려동물의 4대 주력산업인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이 15조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였다[1].

동물원은 인류가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정착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동물을 전시하고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대 동물원의 효시로는 BC 1200년경 주나라 「지식원(知識園)」을 드는데, 주나라의 무왕이 정원에 호랑이, 사슴, 코뿔소 등의 대동물과 새와 큰뱀, 거북 등을 사육했다고 한다[2].

지식원은 일반시민이 동물학상의 흥미와 새로운 지식을 얻었는데 현대 동물원의 기능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3].

근대 동물원은 오스트리아 빈의 쇤브룬 동물원을 최고(最古)의 동물원으로 본다.

과거 인류가 먹고 살기 급급했을 때는 반려동물이나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언급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현대는 물질문명의 발달로 동물의 복지를 큰 주제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원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있어 동물원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제적 문헌, 즉 논문을 검색사이트인 KISS & RISS를 중심으로 KCI 등재지 중심으로 ‘동물원동물’, ‘복지’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선정하였다[6].

2.2 조사대상

동물원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한다.

2.3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할 예정이다.

3. 결론 및 제언

동물원은 초고령사회의 대한민국에서 동물원 동물의 역할은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의 종 보존과 연구 기능, 어린이와 청

소년에게 교육기능, 바쁜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시간을 공유하며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7]. 관련 논문과 설문지 분석을 더하여 보고할 것을 약속드린다.

참고문헌

- [1] 김석은, “펫코노미 시대의 반려동물과 동물원 동물에 관한 연구”, (사)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2023년.
- [2] 문홍식, “동물원의 역사”, 대한수의사회지, 제13권 제1호, pp. 25-30, 1977년.
- [3] 문홍식, 오창영, “동물원의 역할”, 대한수의사회지, 제13권 제4호, pp. 261-263, 1977년.
- [4] 김성한, “동물원 옹호 논의에 대한 비판적 제고”, 철학탐구 29권, pp. 135-163, 5월, 2011년.
- [5] 법제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약칭: 동물원수족관법)”, 2024년.
- [6]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pp. 1-363, 2012년.
- [7] 위키백과, “동물원”, 네이버, 2024년.
- [8] 윤익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정책적 담론-헌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pp. 37-65, 2016년.
- [9] 이형숙, “동물원 방문객의 인식 및 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40권 제3호, pp. 51-59, 6월, 2012년.
- [10] 조경욱, 최병인, 김휘율, 한진수, 김진석, “국내 동물원의 동물복지 평가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한수의학회지, 제49권 제1호, pp. 91-99, 2월, 2009년.
- [11] 홍선화, 류석현, 윤영준, 양일영, 진장훈, 홍주희, 김동우, 이유진, 김다슬, 권혜영, 김옥진, “동물원 동물을 위한 환경 풍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제4권 제1호, pp. 80-87, 4월, 2015년.